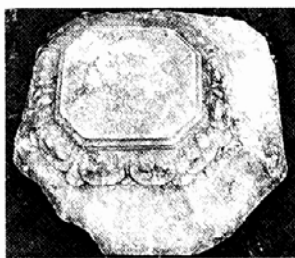


폐허로 변하는 寺址

쌍사자 석등 옥개석 민가담장서 발견 전국 사찰터 5%만 문화재 등록



◇최근 발굴된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의 옥개석.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터는 2,141개. 이 가운데 95곳만이 지정사찰이다. 대부분 사지는 땃밭을 제외하곤 잡초에 묻혀 폐허로 바뀌고 있다.

9일 경기도 여주군 고달사지 발굴 현장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의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99년 말에 발견된 옥개석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의 옥개석을 밝혀냈다. 그러나 석등의 지대석이 있던 바로 옆에서 이 옥개석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사지 지정 및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93년 사적 제382호로 지정된 고달사는 고려 3대 선원의 하나로 불렸던 명찰이다. 여기서 발굴된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해 5점이 이른다.

문화유산의 보고 사찰. 하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방치되고 있다. 국보와 보물이 다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 이런 상황이나 비지정사지의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계종 총무원이 97년부터 3년에 걸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터는 2,141곳. 이 가운데 국가 사적 29곳 등 95곳만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문화재청 자료). 5%가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찰터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찰기 식의 지표조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조사하는 데 그칠 뿐 유구의 흔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고달사지의 경우 84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나 절터의 규모가 웅장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만 했지 정확한 사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14년이 흐른 98년에야 본격적인

발굴을 위한 시굴조사에 들어갔다. 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고장 구기에 힘입어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 북한산 향림사지와 삼천사지, 둘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명찰이다. 향림사지는 거란군의 침입을 피해 고려 태조 왕건의 능을 두 번이나 이곳에 이안하는 등 고려왕실과 밀접한 곳이다. 삼천사지는 고려 법상종의 중심사찰로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폐사가 되어 그 자취는 잡초에 묻히고, 탐은 붕괴된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석물이 인근 계곡이나 능선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불교사적이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사찰터 가운데는 개인소유나 문중터, 논으로 변한 곳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정되지 않는 절터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다"며 "이런 곳들은 사적으로 지정해 더 이상 유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주체는 있으나 지정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사리신앙 자장율사 전파”

‘사리신앙...’ 학술회의서 장충식 교수 주장



한국의 사리 신앙의 근원은 7세기 자장 율사의 불사리 전래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계단(戒壇)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충식(동국대박물관장) 교수는 16일 ‘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자장 율사에 의해 시작된 한국의 사리 신앙은 이후 계단수호의 역사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사찰의 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공덕’의 개념으로까지 승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자장 율사가 이룩한 계단으로 인해, 통로사가 계층의 근본도량이 될 수 있었고 또 계단에 사리를 봉안함으로써, 사리가 곧 계단의 계층임을 말했다는 것이다. 즉, 사리 신앙은 계단의 중심을 이루었고, 그 계단은 일명 사리탑이라는 명칭으로 오늘날에도 신앙의 대상이 된 셈이다.

국내 계단의 형태는 모두 고려시대 이후의 조형이 전래되고 있어, 신라시대 계단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장 교수는 “다만 고려시대 계단의 형태에 준하여 볼 때, 감은사 동서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구의 형태가 신라시대 계단의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불국사의 다보탑과 같은 특별한 형식의 석탑이 하루아침에 바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신라 계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감은사 석탑 금동사리구와 같은 형식을 근거로 하여 조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후 사리 신앙이 불교의 신비주의를 극대화하였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 역시 불교 신앙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며, 불탑미술과 같은 조형예술의 창조에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외에도 장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계승은 화엄계승”이라고 밝히며, 자장율사가 단순한 계층의 스님이 아니라 화엄교학의 스님임을 재차 강조했다.

통도사박물관이 16일 개최한 세미나에는 ‘경주 내원리·감은사지 석탑 내 발견 사리장엄구의 보존처리’(조유진·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불사리장엄’(강우방·국립경주박물관), ‘중국 수·당대 사리용기(항중·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교수), ‘일본 불사리장엄’(가오다 사다무·일본 제충신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대장경연구 세미나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문화변동’

“전자공동체 도덕성 불교서 찾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문화변동’을 주제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개최한 세미나는, “가상 세계는 이제 과학·예술·철학·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전환과 변혁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여러 학자와 전문가 28명이 모여 발표와 논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가상 공간’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를 넓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는 계기를 맞은 셈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상공간의 의미와 역할은 ‘인터넷 의료를 포함한 원격의료는 조만간 중요한 의료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권상옥·연세대), ‘온라인 게임 세계가 제2의 현실 세계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김영남·사이오닉스 게임 디자이너), ‘새로운 기술을 문화적 의미체계로 받아들이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김민수·디자인문화비평가), ‘가상공동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간의 정착과 확산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박병기·전주교대), ‘가상공간은 문명의 해박이라

고 할 새로운 공간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소홍렬·포항공대) 등이다.

이와 같은 의미와 역할에 따르면 미래의 생활공간은, 현실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은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우리의 생활을 중요하게 가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반면 이동일(단국대·영국영화) 교수는 “테크놀로지와 전자매체를 어떻게 인간화하고 자연화하여, 문명의 흥기가 아닌 이기기로 정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가상 공간의 역기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종림 스님은 “불교계가 가상공간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을 중시하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도덕적 논의에 보다 많은 역량을 모아, 이 곳에서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계는 더 이상 가상공간에 대한 무기력한 관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행위자가 되려는 의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은 네티즌의 전유물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갈 모두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9월 10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개최한 학술 세미나중 ‘가상세계의 종교’ 문과 진행 모습.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트렉스 불교사이트

해외박물관 소장 정보 ‘구경’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예술품을 한번에 열람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이 있다면 아트렉스의 불교 사이트(artlex.com/ArtLex/b/Buddhism.html)를 클릭해 보자. 이 사이트는 윌케스터 아트·메트로폴리탄·L.A 카운티·기메 등 8개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아시아 유물 가운데 불교 예술품 40여종을 모아,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생산한 그래픽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 고미술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물로는 한국 보살상(기메 소장) 인도불상(윌케스터 아트 소장)과 중국 탕화(메트로폴리탄 소장) 등이 있다.

한국 탕화는 1888년 경북 성주 동광사에서 프랑스 민속학자 샤를 바라 씨가 가져간 천수관음보살상. 13세기에 조성된 이 보살상은 높이 90cm, 너비 90cm, 무게가 약 60kg으로 청동에 금이 입혀져 있다. 천수관음은 천안천비관세음·대비관음이라고도 불리며 양쪽에 각각 20개의 손이 있다.

인도 카트라스산에서 1985년 발견된 인도 불상은 2세기 경 사암으로 제작된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Shakyamuni Buddha)라고 불린다. 얇고 긴 옷을 걸치고 있는 이 불상은 둥근 얼굴에 길다란 귀가 주목되며, 오른손을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중국 탕화는 원나라 때의 작품으로 예술성과 종교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포항 오어사 유물전시관 개관

신라때 창건한 천년고찰 포항 오어사(주지 학나)에 유물전시관이 들어섰다.

사찰 입구에 세워진 유물전시관은 13평 규모의 단층 한옥으로 원호대사 사당과 수저를 비롯해 법화경 4점, 오어사 사적지 2점, 대웅전 상량문 등 모두 20여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전시유물 가운데는 특히 지난 95년 오어지 준설공사 중 발굴돼 보물 제1280호로 지정된 고려종종이 눈길을 끈다. 신라 동종의 주양식을 계승한 이 동종은 조성연대가 분명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양각으로 새겨진 각종 장식문양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어사는 국가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1월부터 공사를 시작, 5월말 마무리작업을 마치고 6월부터 전시에 들어갔다. 개관식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신라 진평왕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오어사는 원호, 해공, 자장, 의상 등 신라 고승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며, 조선 영조때 중건한 대웅전은 경북도 문화재 제88호다. 권형진 기자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에 힘쓰고 계신 지묵스님의 글모음집

산승일기

(산승일기)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절집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소묘라 할 수 있다.
선방생활, 총무 소임, 여름철 수련법회 원장 등을
지내며 스님들은 물론 재가 신자들과 접촉이 잦았던 지묵스님은
그간의 절집에서의 경험을 넘쳐난 입심으로 풀어낸다.
법정, 성법명, 종철 스님의 이름과 관련한 일화와 전갈, 구산, 고암 등
큰 스님들의 비화 등 애깃거리가 풍부하게 담겼다.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담은
'여름 수련회' 편은 율가철에 '짧은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소재가 될 듯하다.

-경향신문-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신국판/288쪽/8,000원

정후스님 신작수상집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계를 중심으로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임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랍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청학선사

육신이 불에 타후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후로 돌아가 나는 다시 불이 되어 태어나고
흔들 키우는 그곳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살도 죽어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적멸의 즐거움본문중에서-

우리출판사 전화/313-5047 팩스/393-9696 신국판/240쪽/7,000원